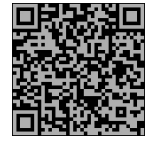


#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연중 제33주일 (2024년 11월 17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그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 12, 1)



*The Triumph of Christianity Over Paganism* 1868, Gustave Doré (French 1832–1883)  
출처: ART GALLERY OF HAMILTON <https://www.artgalleryofhamilton.com/collections/international-collection/#>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7)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46**      **사랑의 송가**      연중  
(1코린 13)

바른 듯한 느낌으로      *mp*      Tina Benitez

1. 천 사 의 말 을 하 는 사 랑 도 사  
2. 진 리 를 보 고 기 뻐 합 니 다 무  
3. 지 금 은 회 미 하 게 보 이 나 그

랑 없 으 면 소 용 이 없 고 심  
랑 없 는 주 님 마 주 비 오 리 하

오 한 진 리 깨 달 은 자 도 울 리  
든 것 밑 고 리 알 고 계 시 랑 듯 우 리

는 것 도 정 과 같 네 하  
도 주 어 주 알 리

는 님 말 슌 전 한 다 해 도 그 무 슌 소

용 있 나 사 랑 없 이 는 소 용

이 없 고 아무 것 도 아 님 니 다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하다

(다니엘 12,1-3)

1 그때에 네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2 또 땅 면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3.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르 13,24-2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 무화과 나무의 교훈

(마르 13,28-32)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무엇을” (마르 10,17) 말씀으로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대학 시절부터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답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이 질문을 통해 다시 떠올랐습니다. [NV2]
-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마르 10,21) 말씀으로 기도하며, 울상이 되어 떠나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구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NV2]
- “주어라” (마르 10,21)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방식과 인간적인 나눔에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많은 것을 내가 나눠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의 빈구석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V2]
- “참으로 어렵다!” (마르 10,23),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27) 말씀으로 기도하며, 본성을 거슬러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조차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에 힘을 내야겠습니다. [NV2]
-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마르10,21) 저희 NV3 반에서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청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겠습니다. [NV3]
-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마르 10,21)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RC2]
-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마르 10,21)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 생활과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주위와 마찰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RC2]
-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마르 10,22) 말씀으로 기도하며, 언젠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예수님을 만날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울상이 되어 슬픈 눈으로 바라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놓으며 살아갈지를 돌아볼 때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RC2]

-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마르 10,20),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마르 10,21),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마르10,23),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 27), 저희 RC3 반에서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저희가 머물며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청합니다. [RC3]

##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379번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1절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 379

Fr. 김태진

D F#m Bm F#m

어둔 거 리 비 추는 작 - 은 등 불 처 럼

5 G D Bm Em A7

내 주 위 의 사 람 에 게 빛 을 줄 수 있 다 면

9 D F#m Bm F#m

나 의 한 평 생 - - 결 코 헛 되 지 않 으 리

13 G D Bm Em A7 D

나 - 의 사 랑 으 로 빛 을 줄 수 있 다 면 때

17 F#m Bm Em A7

론 나 의 힘 만 으 로 - 벽 찰 지 몰 라 - 그

21 F#m Bm Em G A7

럼 기 도 할 거 야 - 나 의 벗 이 며 - 나 의 사 랑 주 님 께

25 D F#m Bm F#m

하 늘 에 태 양 은 못 되 도 - 밤 하 늘 달 은 못 되 도 주 위

29 G A D Bm Em A7 D

를 환 하 게 비 춰 주 는 작 은 등 불 되 리 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성스러운 영혼 기억하는 특별한 날...세상 떠난 이들 위해 기도를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두 특별한 날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성인들, '위령의 날'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연옥 영혼들, 곧 둘 다 '성스러운 영혼'을 기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세기에 정립된 위령의 날은 4세기에 시작된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과 '위령의 날'의 역사와 의미, 기념 방법과 이때 부여된 전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특히 숨겨진 성인들을 위한 '모든 성인 대축일'

교회는 처음에 순교자만 기렸지만, 다른 성인들에게까지 축일을 확대하면서 1년 365일이 전부인 전례력으로 수많은 성인을 모두 기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든 성인 대축일'은 특히 역사 속에서 잊히거나 축일이 없는 성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609년 성 보니파시오 4세 교황(재위 608~615)이 로마 판테온 신전을 성모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에게 바친 교회로 축성하며 5월 13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뒤 731년 11월 1일 성 그레고리오 3세 교황(재위 731~741)이 성 베드로 대성당 내 부속 성당을 사도, 순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인을 위해 바치면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레고리오 4세 교황(재위 827~844)은 11월 1일 기념행사를 교회 전체로 확대했으며 1484년 식스토 4세 교황(재위 1471~1484)은 축일에 성탄, 부활 대축일과 같은 8부 축제를 추가했고 이는 195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8부 축제는 오늘날 위령 성월 전대사 수여 기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신자들은 성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하늘나라에서의 지복을 간구하며 미사와 기도를 봉헌합니다. 또한 성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망하는 바의 중재를 청하고 성인들처럼 지상에서도 하느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All Saints Day 1888, Friant Emile (French 1863-1932) 에밀 프리앙 <모든 성인의 날>



## 미사를 세 대 드릴 수 있는 ‘위령의 날’

‘위령의 날’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정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미사 봉헌과 기도, 희생 등은 연옥 영혼들이 죄를 씻어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30년경 프랑스의 클뤼니 수도원장 성 오딜로(961/962~1049)는 클뤼니 수도회의 모든 수도원이 매년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켜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후에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보내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실베스테르 2세 교황(재위 999~1003)은 ‘위령의 날’을 승인하고 여러 지역에서 기릴 것을 권고했으며 14세기에 들어 교황청은 이를 보편 교회에 널리 확대했습니다.

‘위령의 날’에는 유일하게 미사를 세 번 봉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성체도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1915년 8월 10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사자가 많고 교회가 파괴되며 전쟁이 끝이지 않자 베네딕토 15세 교황(재위 1914~1922)은 교황령 「제대의 피 없는 제사」(Incruentum Altaris)를 통해 ‘위령의 날’에 세 대의 미사를 봉헌하기를 간곡히 권고했습니다. 세 대의 미사 중 한 대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지향으로, 다른 한 대는 죽은 이들을 위해, 마지막 한 대는 교황의 지향에 따라 봉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령의 날’은 우리가 모두 지상의 순례자이며 언젠가는 창조주인 하느님께 돌아갈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신자들은 조상 혹은 가족의 묘소를 방문해 꽃으로 장식하고 촛불을 켜서 추모합니다.

### ■ 위령 성월 전대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을 전부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라고 합니다.

교황청 내사원에서 펴낸 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11월 2일 ‘위령의 날’에 (또는 교구장이 동의하면, 그 앞이나 뒤에 오는 주일에, 또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전대사는 본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연옥 영혼을 위해 양도만 할 수 있습니다.





## 2024 9월 성경 통독 모임 신명기 말씀과 함께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신명 5,32-3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녕 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다.”** (신명 9,6)

제가 이제껏 살아낸 것도 하느님께서 저를 단련시킨 60년 세월일까요? 지금도 아직 주님의 단련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비틀거리며, 훌쩍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버리기도 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를 성취하였을 때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목이 뺏뺏해졌습니다.

이러한 60년 세월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큰 힘과 당신의 뻗은 팔로 저를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의 주님은 야단치며 성을 내시고, 또 다독거리 주시지만 여전히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의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통하여 저에게 내리시는 끝없는 자비를 체험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 안에 녹여 가며 닦아 가고자 매일매일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글 | 김은숙 데레사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모양 별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현세의 많은 것들이 꽉 차 있어서 하느님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 한 부분에 하느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하며 나아가서 내 마음 속에서도 가장 높고 넓은 자리에 하느님이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마음의 활레가 필요합니다. 성당 일을 열심히 하고,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목이 뺏뺏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만 하느님의 백성이므로 하느님께 받은 약속의 땅은 우리들만의 것이다’라는 구약의 신앙관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복음의 신앙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세의 축복을 기원하는 신앙에서 영적인 천상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

신명기를 읽고 공부하다 보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며 구약 신학의 핵심이고 총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외워지지 않는 낯선 이름들과 지명을 빼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수천 년을 아우르는 시대상, 문화 차이를 함께 이해해 간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어서 통독하기도 여러 번 했고, 교재로도 공부했지만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인가 봅니다. 조금 나았던 점은 성서만 읽고 공부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지식에 신부님께서 해 주신 강의 파일은 이해력이 달리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유언 형식을 띤 신명기의 내용이지만 작가는 모세가 아니고, 여러 차례 편집되어 곳곳에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어쩔 수 없이 정치색이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에 ‘뭐지?’ 했던 부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글의 단어나 문맥에 따라 당시 이념이나 시기 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설명에 그냥 무턱대고 읽어 내려가고 뒤돌아서 잊어 버렸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깊이 있게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책이구나’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항상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할 구절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살짝 고백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나의 주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글 | 강명선 루시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유언 형식으로 남긴 것으로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에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의 기록입니다. 불완전하고 약해 보이는 인간을 염려해서 길고 장황한 마지막 말을 남기는 모세의 모습에서 문득 십자가 수난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세우시며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주님, 승천하신 후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을 떠올립니다.

아주 오래전, 아들과 딸이 아직 초등학생일 때에 척추를 크게 다쳐 반년 정도를 누운 상태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아직 너무 어린 이 아이들은 어쩌나...’하는 생각에 혼이라도 옆에 있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매일 되뇌면서도 간절하게 와닿지 않았던 ‘영광의 신비 3단’이 가슴속 깊이 박히면서 ‘우리를 남겨 두고 가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우셨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두 가지는 첫째,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리하면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것으로, 하느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려는 이유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환기시킵니다.

하느님의 세상을 향한 의지를 모세만큼 잘 이해하고, 때로는 버거워도 순종하려고 애쓴 인물도 찾기 힘듭니다. 21세기를 살아 가는 나는 당시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곤란함을 잘 알지도 못하건만, 흘러간 세월이 후대에 증명서처럼 내밀어 준 모든 것이 명백한데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가 아직도 잡히지 않음에 슬프지만,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해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하기도 합니다. — 글 | 박영선 테레사